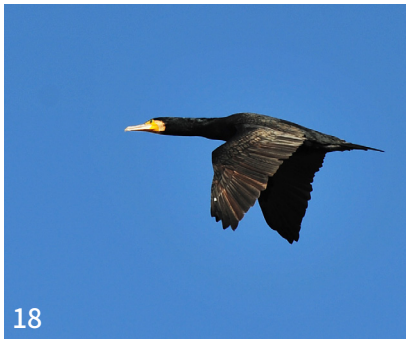
CONTENTS

2

12


18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68 —— 김종원 부이사장, 대전네트워크 대표

8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15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김영우 이장님을 찾아

12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2
2, 3, 4구간 찬샘마을길, 호반열녀길, 호반낭만길

18 특별기고 —— 바닷새 어벤져스

26 네트워크 신입팀장 인사 및 사업계획 소개

30 사업보고

34 대청호 뉴스&뉴스

37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소식 vol.123

발행일 2020. 5. 29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마을의 한 컷. 봄꽃이 너무 짧게 피었다 지어 아쉽다고들 하지만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이 누구나 아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철쭉이 피었다 꽃잎이 떨어져 땅을 뒤덮었지만 향기는 여전합니다. 꿀벌이 떨어진 꽃잎의 향기를 쫓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자연의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보다 자연과 가까워지라고 이 지구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나뭇꾼, 농사꾼으로 살아갑니다.

김종원 부이사장, 대전네트워크 대표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월 30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제19차 정기총회에서 부이사장으로 선출되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 김종원(61) 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5월 초에 김종원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풍림의 회의실에서 만났다.

자연을 미소 짓게 하는 기업에서의 일하는 행복

- 김종원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풍림에 대해 여쭤보았다.

"풍림이라는 회사는 좀 특별하다. 임업전문법인으로 현 공동대표의 선친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198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3대째 내려오고 있다. 임업분야에서 전임 김창섭 회장은 큰 거목이셨다. 저의 역할을 부사장이자 경영총괄본부장이다. 경영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가 대표진과 가족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동아그룹 목재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994년 전임 김창섭 회장을 만나서 풍림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수입나무 10년, 국내임업 26년 총 36년을 나무와 같이 살아왔다.

저희 풍림은 참 좋은 회사이다. 제가 소속되어서가 아니라 70여명의 직원들이 마음껏 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회사이다.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회사로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대가 한 우물을 파면서 임업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는 아마 풍림처럼 다양한 업종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다.

주식회사 풍림의 주력사업은 다양하다. 제지용 펄프 우드칩을 생산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에 목재 팰릿이 있는데 여기에도 매진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업도 크게 하고 있다. 조림과 벌목사업도 하고 있다.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용이다. 과거에는 브리캣, 제지업, 레이저 산업, 판화 조각, 농기구 제작 등 나무와 관계된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요즘 코로나19로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내 소비용이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문용지가 줄어들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 제지업 자체가 많이 어렵다. 종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보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종이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지, 펄프 산업이 과거에는 70~80%가 수입에 의존했다. 지금의 경우 국내가 50%, 수입원자재가 50%이니 국내 임업이 많이 발전하였다. 반대로 국내에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수출을 해야 하는데 수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나뭇꾼, 농사꾼으로 살아온 이야기

-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고 농촌에서 나무

와 같이 자랐다. 저는 그동안 자신을 나뭇꾼 또는 농사꾼이라고 소개해 왔다. 나무와 함께 자라 왔고 농사와도 너무 친근하게 생활해 왔다. 나무와 농사가 저의 성향과 참 잘 맞는다. 그래서 학교 졸업 후에 동아그룹 목재사업본부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임학을 전공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질학을 전공하였다.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지금의 이 회사 풍림에 참 감사하다. 괴산, 충주, 김제, 문경, 옥천 등에 여러 공장을 지으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었다. 또한 대내외협력활동을 하는데도 큰 지원을 해주었다. 우리나라에는 목재를 육성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업종의 22개 목재산업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모여 산림청 산하에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어 제가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5대 회장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많은 업종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임업 전체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 부분을 풍림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다. 저로서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부분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임 김창섭 회장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 새로운 전환기의 섭리적 만남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분과 역동적으로 일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 임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을 함께 일궜다고 생각한다.”

대전충남생명의숲과의 행복한 인연

- 대전충남생명의숲에서 활동해 오신 그동안의 과정을 들어보았다.

“대전충남생명의숲과 함께 한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 전임 김창섭 회장이 충남대, 충북대 임학과 교수들과 인연이 있었다. 임학과 교수들로부터 다양한 임업에 대한 자문도 받는 등 만남이 많았다. 저도 협력을 위한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수진과 알게 되었다. 그 때 충남대

학교 전양 교수가 대전충남생명의숲의 대표로서 첫 출발을 하였고 저 또한 대전충남생명의숲을 접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단체에 참여하였고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에 상임대표로 선출되었다. 3년간 상임대표 활동을 하고 현재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전충남생명의숲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체이다. 나무꾼, 농사꾼으로서 당연히 좋아하지만 그 어떤 NGO단체 보다 순수한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좋아하고 있다. 대전충남생명의숲에서 활동하면서 참 행복했던 점은 많은 다양한 건강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간에 참 화기애애했던 것이다. 그런 건강한 모습이 너무 좋았다.

자연을 미소 짓게 하는 기업이라는 풍림의 슬로건처럼 제가 상임대표를 하면서도 우리 대전충남생명의숲이 생명의 숲, 공존의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한 바 있다. 생명의 숲뿐만 아니라 공존의 숲이 되어 자연을 미소 짓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각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도농교류 - 덕실마을 가을걷이

행운이기도 하고 참 뜻 깊었던 것은 대전충남생명의숲 창립 20주년 행사와 숲사랑 15주년 행사를 제가 상임대표로 활동할 때 추진했던 것이다. 너무나 많은 지지와 응원, 아낌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한 결 같이 모든 회원이 응원해주고 새로운 20주년을 꿈꾸고 했던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다. 비록 3년의 짧은 상임대표의 시간을 보냈지만 참 행복했다.

대전충남생명의숲의 다양한 사업들에 조금씩 참여를 해보면 함께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모두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았다. 슬로건 뿐 만이 아닌 진정한 공존의 숲을 만들고 자연을 미소 짓게 하고 우리 영혼이 숲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 같았다. 그런 점이 대전충남생명의숲에서의 활동이 가장 뜻 깊은 것이 아닌가 한다. 요즘에는 상임대표할 때보다는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대청호보전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할 터

- 환경운동, 대청호보전운동에 대해 여쭤보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자 자연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공존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느낀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자 자연이 되살아난다고 하여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으니,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오염을 줄이면서 저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 그것이 공존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아!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를 노력을 해야 하는 구나’, ‘환경과 같이 호흡해야 하는 구나’,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연을 미소 짓게 해야 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고 우리의 영혼도 더불어 같이 호흡하고 미소 짓게 해야 한다. 대청호도 첫 번째가 보전이 잘 되어야 한다. 난개발을 하거나 일부의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대전네트워크 대표로서 활동하다보니 어쩌다 부이사장까지 맡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제안되고 맡게 된 만큼 대전충남생명의숲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농사꾼이자 나무꾼으로서 환경보전, 대청호보전에 작은 밀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역할을 찾도록 하겠다. 특히 대전충남생명의숲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환경의 홍보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만 해서는 안 되고 함께 더불어 가야하기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겠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부이사장으로서 이사장을 잘 보좌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작은 디딤돌의 역할을 하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쩍 가까워짐을 느꼈다. 진지하지만 부드럽고 종종 웃음을 머금고 이야기하는 김종원 대표의 말씀에 공감했기 때문이리라.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싶어졌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내 고향 청정지역을 잘 지키겠습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김영우 이장님을 찾아

봄과 초여름 사이, 그 겨울의 황량함은 온데간데없고 온누리가 신록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탄성을 자아내며 군북면 자모리로 향했다. 대전 옥천 간 국도에서 산세 좋은 청정 마을로 들어서니 노지와 하우스에 부추랑 아욱이 눈에 띈다. 봄비를 머금고 촉촉이 젖은 부추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식탐을 자극한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부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마을 할머니를 만났다.

“자모리 부추가 유명한가 봅니다.”

“그럼요. 여기는 참말로 깨끗한 곳이고 부추가 맛나지요.”

“부추를 조금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류? 나를 따라 와요.”

할머니는 자신이 사는 마당을 지나 부추밭으로 가시더니, ‘외지에서 일부러 오셨다니께 좋은 놈으로 드려야지.’ 하시며 부추 다섯 단을 묶어 주셨다. 두 단은 동행한 후배가, 석 단은 내가 가졌다.

잠시 후 김영우 이장님(64)과 소통하여 마을 회관에 들어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지요 뭐. 자기소개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된대? 그러니까 1957년에 태어나서 우리 마을에 살다가 1992년도에 도시로 나갔었지요. 건축업에 식당업도 했는데, 치매의 일종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가족 협의를 거쳐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싶었지요. 아내랑 둘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네요. 고향으로 돌아온지 약 9년째 됩니다.”

김영우 이장님은 동네 분들의 신임이 두터워 올해로 5년째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자모리는 140여 세대, 약 300명으로 구성된 마을로 예로부터 부추 하면 자모리 부추라 하여 유명 메이커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금은 부추 외에도 아욱, 호박잎, 고춧잎 생산을 가세해 농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부추는 자모리에서 재배한 지 약 50년이 될 정도로 전통이 있다. 이은규라는 마을 어르신께서 최초로 부추 농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자모리 부추는 대전 시내에서는 무조건 메이커였다. 좋은 부추에 가격도 좋아 마을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 도시에 건물을 살 정도로 흥했다. 경기도 좋고 값도 좋아 돈도 많이 벌고 도시에 건물을 살 정도로 흥했다. 청정지역이다. 공기 좋고 물 맑아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으로 으뜸이다. 부추 농사의 유명세로 전국에서 자모리로 견학을 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예전에는 마을 농사의 80%가 부추였다. 지금은 마을 어르신들의 연세도 많고 값도 저렴해져서 약 20 농가가 부추 농사를 짓는다. 예전에는 억대 수입을 넘기는 분들도 많았지만, 현재는 연평균 2천 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정도라고 한다.

부추는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연작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아욱 농사를 짓는다. 아욱은 일하기도 손쉽다고 한다. 자모리 마을 주민들은 호박이나 고추 농사를 병행하여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자모리는 마을을 휘감은 산세와 청정 환경을 자랑한다. 마을 뒤가 식장산으로 지형상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발차가 자모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싣고 시장으로 다닐 만큼 대전 근교에 위치하여 교통도 좋다. 비닐 하우스도 1960년대부터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당시 이찬규라는 어르신이 새마을 운동 때부터 헌신을 해서 훈장도 받고 마을이 융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모리는 올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서화천 유역 주민 참여형 수질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이장은 오염 예방 및 쓰레기 투기 금지 관련, 끊임없이 주민을 계도하여 성과를 내고자 한다. 마을 쓰레기가 많아 처리가 힘든 실정이다. 인식 부족으로 분리 배출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 이장은 개인적 설득은 물론 계도 방송을 자주 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해 회의를 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플래카드를 만들어 마을 정화는 물론 서화천 유역 수질 사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자모리는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나뉘어 있어 경로당이 두 개다. 윗동네에서는 오래 전부터 마을 조상들이 돌탑을 쌓아 마을 안녕을 기원해왔는데, 그 과정을 기리고 마을 화합을 위해 탑제를 지낸다. 정월 대보름 전날, 위아래 주민들이 다 모여서 풍물 놀이를 하고 제를 지내며 마을 화합과 연중 화평을 기원하는 축제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 갈증을 느끼고 있다.

자모리 주변에 ‘장고개’(자모리와 대전의 경계 지점)가 있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장고개를 넘어서 대전으로 팔러 갔던 추억이 넘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억의 길을 되살리고 마을 발전을 위해 자모리에는 현재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다. 김영우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단합하여 누릿길 조성 사업에 공모한 상태다. 주변 임도와 연결하여 마을 전체를 휘감아 도는 누릿길을 만드는 사업인데 김 이장은 선정

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인터뷰 끝자락에 김 이장은 자모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다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필자의 아내는 자모리에서 사온 부추를 보더니 아주 기분 좋게 부추 김치를 담갔다. 며칠 지나면 살짝 익어서 감칠맛을 낼 텐데, 그 맛이 기다려진다.

청정 지역 자모리의 발전을 기원한다.

글 여규용 6기 대청호해설사

대청호 해설사가 들려주는 오백리길 이야기

2, 3, 4구간 찬샘마을길, 호반열녀길, 호반낭만길

『버려지는 쓰레기를 어찌 할 것인가?』

2구간 - 성치산성 정상

이번에 걸어본 2, 3, 4구간에 속하는 오백리길은 비교적 풍광이 아름다운 길이다. 봄도 한창 무르익은 듯 연두빛에서 초록빛이 더 깊어지고 숲에서는 새소리도 한층 목소리가 커져 있다. 이현동 생태습지를 지나 이어진 2구간 길은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다. 초입에서 호수 쪽으로 걸어 들어간 길은 불어난 물로 길이 끊어져 버렸고 잡목 숲을 헤치고 나가기엔 역부족이라 가던 길 되돌려 이현동으로 나온다. 돌아 나오던 길에 눈에 비친 개발현장이 눈길을 잡는다. 포크레인으로 헤집어 놓은 것이 밭을 만들려는지 아니면 주택을 지으려는지 알 수 없는 모습이다. 공사 안내판이 없어 정식으로 허가를 얻은 공사인지는 알 길이 없다. 아무리 보아도 무단 불법 개발처럼 보인다. 바로 지척이 상수원보호 구역인데 생각 할수록 의문이 남는다.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야 할 곳이 누군가에겐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개인적인 치부의 한 방편이 된다면 절대 안 될 일이다.

2구간 - 끊어진 길

2구간 - 성치산성으로 가는 길

돌아 나온 길을 차로 이동하여 냉천마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남은 2구간을 걷기 시작을 한다. 전망 좋은 곳 황호동 까지는 이렇게 차도를 걸어야 한다. 비록 우거진 숲이 있어 걷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조금 지루 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 포장된 도로를 따라 걷는 길이라 둘러보는 곳곳이 우거진 녹음이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봄꽃들이 벌 나비를 불러 모으고 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양봉을 하는 분들이 계신 듯하다. 수많은 벌통에 길 양쪽으로 가건물과 차양막을 치고 양봉을 한다. 오염되는 일 없도록 잘 관리 하고 버려지는 폐기물들이 없었으면 한다. 그렇게 도착한 곳 황호동 끝 지점 건너다보이는 청남대 풍경이 아름답다. 여기서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점심을 한다. 조촐하지만 맛깔 나는 점심을 마치고 성치산으로 향한다. 정상부에는 퇴뫼식 산성인 성치산성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평온 했던 길이 지금 부터는 오르막길로 이어지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숨은 턱에 차고 등줄기엔 땀이 비 오듯 한다. 등산은 내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진 탓에 지금은 만만치 않다 생각 된다. 우거진 연초록빛을 헤치고 얼마를 올랐을까 확 트인 시야에 일망무제의 조망이 펼쳐진다. 정상에

도착을 한 거다. 퇴뫼식 산성이라 초라하고 보잘 것은 없다. 다만 이곳이 산성 터였다는 흔적만 돌무더기로 느껴질 뿐이다. 그 옛날 대청호 주변의 산봉우리들을 연결한 감시 초소 역할을 한 산성이 아닌가 싶다. 잠시 쉬며 땀을 식히고 다시 발길을 돌려 부지런히 하산 길을 걷는다. 그렇게 걸어 황호동 반대편의 찬샘 마을로 내려서며 2구간 걷기를 마무리 한다.

몇일 쉬었다가 3구간 호반열녀길을 걷는다. 호반열녀길이라 이름 지어진 이유를 생각해 본다. 이 길을 걷다가 냉천길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접어들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인 “미륵원”과 고흥 류씨 묘소와 재를 지내는 “관동 묘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 길은 내내 포장된 도로를 걷게 된다. 초입에서 길가에 잔뜩 쌓여진 쓰레기 더미를 보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농사를 짓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건 이런 쓰레기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참 아쉽다. 마을에서 이것을 보았다면 깨끗하게 치워 주어도 좋지 않을까?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 모습이 이 길을 찾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바로 옆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하얗게 지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 상단에 “성치산성 안내도”라는 글씨 만 선명하게 보일 뿐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잘 정비되고 깨끗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는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오백리길을 홍보하고 알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한다. 아쉬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무료하게 걸던 길이 서서히 끝날 때쯤 상큼한 숲이 우거진 호수 가로 내려선다. 대청호 오백리길 중에서 호반을 끼고 걷는 최고의 길이 펼쳐진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집안인지 조상님 묘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동원한 길 넓히기로 마구 파헤쳐진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조상님 묘소를 가꾸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숲을 마구 파헤친 것에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자기 것만 소중하고 남의 것은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보이는 듯하다. 그렇게 걷던 마음에 위로를

3구간 - 버려진 쓰레기

3구간 - 토론하는 모습

3구간 - 파헤쳐진 길

주는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멀리 드리마 “슬픈연가” 촬영지가 눈에 들어온다. 2005년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라고 하는데 거기 나왔던 주인공들이 보냈던 고향 풍경을 이곳에서 촬영 되었다고 한다.

이런 멋진 풍경 속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에 뜨인다는 것이다. 준비해간 비닐봉지에 눈에 뜨이는 대로 주워 담아보지만 4구간 접어들면서 이미 비닐봉지는 주운 쓰레기로 가득 하다. 함께 동행하는 해설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모습에 안타까움과 찾는 이들의 무지스러움을 탓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러한 주변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며 4구간으로 접어든다. 이 구간 초입에는 유명한 식당을 겸한 이름난 식당이 하나 있다. 우리가 지나는 시간에도 야외 결혼식으로 왁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앞 잔디밭을 지나는데 개똥인지 거위 똥인지 발 디딜 틈이 없다. 조심조심 걸어야 한다. 역시 길옆 갈대밭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주변의 멋진 풍경을 무료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버려지는 쓰레기와 동물의 배설물은 스스로 치우고 관리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모르는 일처럼 한다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 한다. 중간 중간 곳곳에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눈에 뜨이는 것과 숨겨진 것들이 참 많음을 보았다.

4구간 - 동참한 해설사님들

4구간 - 데크길 공사 구간

4구간 - 새로 만든 길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한들 그것이 지켜지는 것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가져온 쓰레기 가져가도록 지키고 감시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보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치우도록 한다면 어떨까? 그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지도도 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도록 한다면 깨끗한 환경도 만들고 일자리도 제공 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 한다. 매일이 아닌 일주일에 몇 번씩 서로 시간을 나누어 배치를 하고 교육을 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해설도 곁들인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해설 속에는 대청호의 유래와 수몰마을에 대한 역사와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등등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생태교육을 통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을 알려주고 협조해 주어야 할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식물들이 살고 어떤 동물들이 있고 어떤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는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 나누고 웃으며 주고받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 한다. 여기에 배치 할 사람들은 적절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가끔은 모니터링을 통하여 활동성과도 점검을 하고 일정기간 재교육을 통하여 실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라 생각 한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발길은 드라마 촬영지가 있는 곳으로 행하고 있다. 이곳을 “명상정원”으로 개발 하느라 공사가 한창이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찾아올지 미리부터 궁금한 생각이 든다. 쓸데없이 파헤치고 원래의 모습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아직은 마무리 되지 않은 공사 현장이 곳곳에 눈에 뜨인다. 걷기 좋게 데크길을 만들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고맙기는 한데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방부목과 철근을 이용한 데크길 만들기와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파헤침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 간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오염도 심해 질 것이고 파괴된 환경이 제자리를 잡는 시간도 길어 질 것이다. 어느덧 걷기도 끝이 나 간다. 연꽃마을을 지난다. 예전의 명성은 어디로 갔는지 초라하기 그지없다 마을을 가꾸고 정비하여 이름에 걸 맞는 연꽃마을로 거듭나 찾는 이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안겨줄 날을 고대해 본다. 다시 강변으로 접어드니 고기 잡는 어구인 그물이 잔뜩 버려져 있다. 절로 눈살이 찌뿌려진다. 이야기 할 것도 많고 손보아야 할 것도 많다. 무거웠다 가벼웠다 하는 마음으로 걷기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4구간 걷기도 마무리를 한다. 이번 걷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환경 지킴 활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인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걷기를 하며 마음에 새긴 아쉬움들을 하나라도 잊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고 지켜가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함께 걱정을 하고 안타까워하며 걸어준 대청호해설사님들께 고마운 마음 나누며 글을 마친다.

글 이시완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소장

바닷새 어벤져스

1. 서론

바다는 지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해양 오염,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무차별한 바다 생물의 남획, 외래종의 침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심각한 육상생태계의 훼손도 바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과학의 불확실성으로 바다를 지킬 묘책도 지지부진하다. 바다가 곧 지구의 문제이기에, 이제 우리에게 슈퍼히어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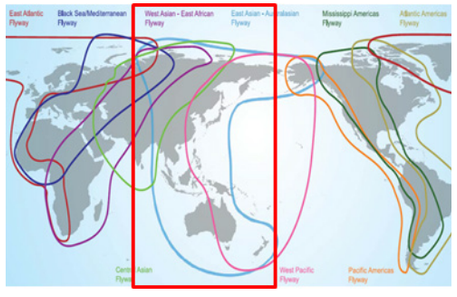
어벤져스(avengers)는 원수를 갚는 사람들이지만, 외계인의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슈퍼히어로(슈퍼영웅)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벤져스는 우주 공간에서 먼지처럼 작은 지구를 지키는 영웅일 뿐이다. 우주의 막강한 악은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어서, 영웅들은 힘을 합쳐서 팀으로 이겨내야 했다. 어벤져스는 상상과 신화에서 창작한 영웅들이지만, 그들의 프리퀄(prequel: 슈퍼히어로의 탄생이나 기원을 밝히는 전편)은 전쟁과 같이 지구의 암울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인적인 능력이 어떻게 습득되고, 계발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슈퍼히어로의 탄생도 지구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연에서도 초능력자. 즉 어벤져스가 수없이 많다. 영웅으로 불러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들은 야생생물(wildlife)이다. 38억년 동안 야생생물은 지구환경 또는 자기가 사는 환경에 적응하여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친화적이고, 저비용고효율의 속성을 가진 이들은 각자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야생생물에서 영감(Bioinspiration)을 얻고, 모방(Biomimicry)해서 현재의 과학문명을 이룩하였다. 식물의 수정원리를 통해 우량 종자를 획득하거나,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의 유선형을 본 땄고, 이동조류의 비행술을 이용하여 최첨단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모두 야생생물의 초능력을 모방해서 이룩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닷새 어벤져스'는 누구를 의미할까? 당연히 바다라는 극한환경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바닷새를 의미한다. 바닷새는 물에서 행동하도록 적합한 체형으로 진화해왔고, 깃털은 보온과 발수를 위해 많은 공기와 유분기를 가지고 있다. 연근해의 갯벌에서 어류, 조개, 갑각류 등을 잡아먹거나 수초, 해조류 등의 식물을 먹기 위해서 부리가 넓적하거나(오리류 등), 얇고 긴부리(도요 물떼새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50여종 5천만마리 이상의 이동조류에게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호주의 조류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에 위치하고 있다. 바닷새를 포함한 이러한 이동조류는 지구환경, 환경오염, 서식환경 등의 지표 동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히어로가 너무 많으면, 식상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슈퍼히어로가 지구상에서 시나브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세히 알지 않으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바닷새 어벤져스 중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바닷새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과 연계된 지리적 위치로 많은 바닷새가 찾는 장소이다. 우리의 서해안을 생각해 보자. 수많은 섬과 얕은 연근해, 하구 등이 발달한 모습이 떠올려질 것이다. 이러한 경관과 수많은 생물은 강원도 산골짜기와도 연결되어 있다. 계곡과 계류를 지나 강으로 흘러

이동경로(EAAF: 빨간박스)



오리부리를 이용한 고속열차(ⓒ위키피디아커먼즈)

가는 많은 영양물질은 바다생물의 생명을 담보하고, 새와 같은 상위 포식자를 키워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바다라는 이질적인 경관에 둘러싸여 육지와 단절되어 있는 섬은 장시간 비행하는 바닷새에게 휴게소의 역할을 하거나, 다양한 포식자로부터 안전하여 집단적으로 번식하는 조류에게는 천혜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즉 바닷새는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민물가마우지: 최고의 잠수 기술과 물질운반자

매년 겨울이 되면 탐조가들은 동해안을 따라 바닷새를 관찰하기 위해 살을 베일 듯 한 추위를 이겨가며 탐조(birdwatching)를 즐긴다. 이러한 과정 중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조류 무리를 관찰하게 된다. 마치 군인의 총검술 마냥 부리를 같은 각도로 정확히 움직이는 3~4천의 무리는 그야말로 장관

민물가마우지

무리지어 다니는 민물가마우지

이다. 이러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조류가 가마우지이다. 가마우지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가맣다'라는 까만 뜻과 자주 운다는 '우지' 라는 뜻이 더해져서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가마우지류는 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 쇠가마우지, 붉은뺨가마우지 총 4종이 서식한다. 가마우지는 기수역과 해양에서 어류를 주식으로 하는 잠수를 아주 잘하는 조류이다. 바닷새 대부분은 꼬리 위쪽으로 미지선이 발달되어 여기서 나오는 왁스성분의 기름을 몸에 묻혀서 깃털의 방수성을 높인다. 그러나 잠수 달인인 가마우지의 경우 깃털의 부력을 줄이기 위해 미지선이 퇴화되었고, 잠수 후 매번 깃털이 젖기 때문에 해안가 바닷가나 모래밭에서 깃털을 넓게 펼쳐서 말려야 한다. 또한 잠수할 때의 대사량은 평소보다 10배가 넘기 때문에 다른 조류와 달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하루 500g의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한다. 유럽에서 서식하는 가마우지류의 잠수능력은 최대 37m의 깊이, 1~2분 동안이나 잠수한 기록이 있다. 그린란드의 가마우지류 평균 잠수능력은 약 6-18m, 42초 정도로 알려져 있어 그들의 잠수능력은 어느 조류와도 비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마우지의 잠수능력은 연근해의 양식장 사장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대부분의 포식자는 사냥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가마우지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날 수 있는 양식장은 너무 좋은 먹이터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겨울철 남해 인근의 양식장은 민물가마우지 떼의 공격으로 많은 물고기를 잃고 있다고 한다.

가마우지는 약탈자의 면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인간과 오래전부터 가마우지 낚시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이누야마시와 중국의 계림은 현재까지도 가마우지의 목에 줄을 묶어 물고기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전통적인 낚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화학적 규모로 볼 때, 중력에 의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영양물질을 가마우지가 거꾸로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즉 하천과 하구에 집중되는 영양물질을 먹고 자란 어류를 가마우지가 잡아서 이들의 집단번식지인 육상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서 사체나 배설물에 섞여 있는 인(P)과 같은 영양물질을 운반한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마우지의 배설물은 인간이 비료나 화장품 재료 등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어서 예로부터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살았던 곳은 마을의 보물로서 보호해 왔었다.

3. 저어새 : 독특한 먹이탐색과 멸종위험

저어새는 얕은 물속에서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좌우로 저으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영어 이름도 숟가락 부리라는 의미로 'black-faced spoonbill'이라고 한다. 저어새의 부리는 생김새와 달리 부리의 촉각이 발달하여 물고기나 새우 등을 잡아먹는데 유용하다.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연안 지역과 내륙의 얕은 수로나 저수지, 논에서 먹이를 찾고 암벽이 많은 무인도에서 번식한다. 특히 남과 북의 경계지대인 해안과 한강하구 지역에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인천광역시 송도의 남동유수지 안에 조성한 인공섬에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도

저어새 무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부리를 휘젓는 모습

경기도 연안 지역의 대규모 도시 개발 때문에 먹이터가 부족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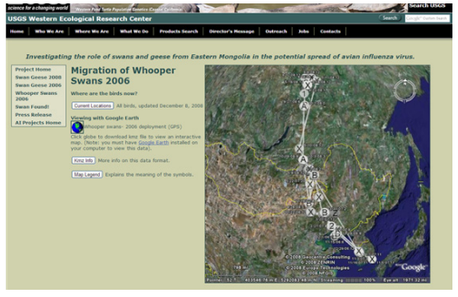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새이다. 1994년부터 IUCN의 RedList에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개체수가 매우 적다. 사는 곳은 동아시아의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북한에서 집단번식하고,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태국, 필리핀, 마카오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한때 전 세계 600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추정하였지만, 2013년 저어새가 사는 국가의 시민이 동시에 조사할 때는 2천 8백마리가 넘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시민이 보호하는 저어새 무리는 여전히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저어새의 주요 위협 요인이라면 동아시아 전역의 경제개발 전략을 들 수 있다. 연안의 광범위한 간척과 매립으로 갯벌 및 습지가 감소하면서 저어새의 먹이장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우양식장 등과 같이 대규모 양식장이 조성되면서 저어새와 인간의 경제적 갈등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역은 우리나라의 남북 접경지대와 인천시, 강화군 일대의 갯벌지역으로 수도권 밀집 지역에 있으며 전 세계 개체수를 유지하는 핵심 지역에 속한다. 즉 저어새의 운명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집중화와 연안의 간척과 매립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황해 연안의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경우라서 저어새는 멸종위험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4. 큰고니: 우아한 발레리나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다.

자연의 발레리나 큰고니(Cygnus cygnus, Whooper swan)는 흔히 백조(白鳥)라고 불렀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으로 알려진 '백조의 호수' 때문에 많은 사람은 여전히 고니보다는 백조로 부르고 있다. 일본식 한자음을 그대로 빌려서 '백조(白鳥)'라고 하였는데, 아마 처음부터 고니의 호수로 소개하였다면 어땠을까? 큰고니는 생각보다 우아하지 않다. 시끄러운 소리와 육상에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은 욕심쟁이처럼 보인다. 그러나 큰고니가 수



위성추적기 부착 큰고니의 이동경로
(http://www.werc.usgs.gov, 2006)

진주시와 사천시의 남강 부근에서 촬영한
위성추적기 부착 큰고니
(http://www.werc.usgs.gov, 2006)

면 위를 박차고 날아오를 때는 역동적이며, 역광으로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칠 때는 매혹적인 자태를 뽐낸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01-2호 큰고니는 전국 전역의 얕은 호수와 해안 등지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다.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큰고니는 약 60,000마리이고,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규모는 최대 4,800마리이다. 큰고니는 고니보다 몸집이 다소 크고, 부리 끝의 검은색 부분이 훨씬 깊게 들어가거나 노란색 범위가 넓다라는 차이빼고는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두 종 모두 암수 형태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단순한 연령 차이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어미 새는 온몸이 흰색이고 부리가 노랗지만, 어린 새는 회갈색 부리와 몸 색깔이 어미와 다르게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시기는 매년 10월경에서 이듬해 3월 초까지 머문다. 깊지 않은 늪지대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듯이 자맥질을 하여 식물의 뿌리나 플랑크톤, 수서곤충을 먹으며, 쉴 때는 땅 위에 가슴을 대고 앉아 머리를 날개에 묻는다. 큰고니와 고니의 동아시아 번식지는 몽골, 중국, 러시아의 툰드라 지역인데, 고니가 큰고니보다 보다 북쪽의 툰드라 지대에서 번식하는 경향이 있다. 둥지는 풀잎과 줄기, 흙을 이용하여 화산 모양으로 매우 크다.

우아한 발레리나는 어디에서 오는걸까? 필자는 2006년 당시 몽골에서 미국 연구자들과 총 10마리의 큰고니를 포획해서 위성추적기를 부착하였다. 그 중 2마리가 우리나라의 낙동강 하구 을숙도와 남강 근처에서 월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한 개체는 몽골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약 2,000㎞가 넘는 거리를 2006년 8월 25일 출발하여 약 76일 후인 11월 8일 을숙도에 도착하였다. 몽골의 부렌 쉬리트(Buren Shireet) 호수와 중국의 통리아오(Tongliao) 호수, 포양(Poyang) 호수 등 습지지역을 거쳐 함경북도 신도, 충청남도의 아산만과 천수만 간월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을숙도에 도착하여 2007년 2월 22일까지 월동을 하였고, 2007년 2월 23일 금강까지 북상을 한 후 북한을 거쳐 다시 몽골에서 번식하였다. 다른 한 개체는 몽골의 위성추적기 부착지역인 도르놋 아이막에서 2006년 8월 27일 출발하여 중국 내몽골을 거쳐 황해남도 해주만 부근 습지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해안, 충청남도 천수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진주시와 사천시의 남강 부근에 2006년 11월 22일 도착하였다. 약 2,300㎞를 88일 동안 날아와 2007년 2월 20일까지 월동한 후 다시 북상하여 몽골로 돌아갔다.

큰고니를 비롯한 이동조류들의 긴 여행에 휴식과 에너지 보충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한 중간기착지 즉 휴게소 역할을 하는 철새도래지(중요조류서식지IBA: Import Bird Areas)는 여러 국가에 걸쳐있고, 이들의 이동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동조류들의 휴게소인 철새도래지들이 개발 압력과 여러 가지 방해 요인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충분한 휴식과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렀다 바로 떠나버리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위협은 이동조류의 긴 여정에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되돌아간 번식지에서 성공적으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큰고니 개체군이 점차 감소하여 멸종의 늪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

5. 바닷새 어벤져스를 위한 네트워크

슈퍼히어로의 영화는 대부분 거대 악을 힘들게 물리쳐서 지구를 지켜내는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바닷새 어벤져스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터에서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지구를 지켜내고 있지만, 거대 악인 인간의 개발에 매우 취약한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세월 바다라는 공간에서 공유해 왔던 바닷새와 우리 인간의 공존 문화도 함께 무너지면서 더 이상 거대 악을 물리칠 수 없는 멸종의 길로 치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바닷새는 총 230종(국내 조류 중 42.3%)이 있다. 이들은 바다 또는 연근해(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서식지)에서 생활사의 일정 또는 핵심적인 시기를 생활한다. 또한, 이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가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 및 국가, 대륙 간의 국제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글 육예화 보은네트워크 팀장

하천감시단 활동의 경험을 살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은 하천감시단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4월부터 보은네트워크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육예화입니다.

보은 하천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맡고 있는 하천의 수질과 환경보호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는 달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활동가로써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었던 하천 지점의 환경보호에도 여전히 관심이 가지만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청호의 환경 개선 활동과 대청호보전에 대한 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아 차근차근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의 보은네트워크 주요 사업계획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부터 대청호에 직유입되는 하천유역의 주민들과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전체적인 사업방향인데요. 이 방향에 맞

추어서 대청호 수질개선 실천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은네트워크는 회인천유역의 2개 마을에서 회인천 소유역 물환경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주민들과 하천정화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환경교육,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진지견학, 마을별 환경교육 등을 진행하고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통하여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연친화적 교육으로 생태적 감수성을 되살리고 자연과 마을 속에서 환경보호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함께 만드는 친환경 생태공동체를 지향하는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글 김인영 영동네트워크 팀장

환경지킴이로서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부터 영동네트워크에서 팀장으로 활동하게 된 김인영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 쬐는 봄이 코로나19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요즘,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하지만 즐겁고 보람된 마음으로 환경지킴이로서 생활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고자 하는 초보 활동가입니다.

저희 영동네트워크는 금강 상류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소유역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주민 환경교육과 지속적인 하천정화활동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함께 할 우리는 소유역지킴이!”입니다.

마을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초강천 정화활동 및 주민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홍보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선진지 사례를 보고 견문을 넓혀서 물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방법을 찾아가는 선진지 견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예년보다 늦어졌지만 알차게 준비하여 사업에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글 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도록 열심히…

안녕하세요?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이상호입니다.

저는 환경운동에 뜻을 품고 2019년 5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구, 맑고 푸른 지역을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녹색도시, 환경교육, 환경문화운동을 널리 펼쳐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그동안 사무국을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맡아왔었는데, 2020년부터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맡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국 단체의 팀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보존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의 올해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청호 하류 소유역 거버넌스 구성·운영하는데 병천천 소유역 거버넌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워크숍, 주민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역거버넌스를 통한 맑은물 환경 조성 실천활동으로 병천천 하천정화활동, 외래종 퇴치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민 물환경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하천탐방 사업을 진행하고 하천환경교실도 운영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하천감시활동 및 오염원 지도 작성, 소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실천 물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수환경 생태조사 및 유역 내 사회분야 특성 조사, 수계 인근 마을 주민교류를 통한 대청호 수계 보전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글 강미선 청주네트워크 팀장

환경보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풀꿈환경재단의 강미선 팀장입니다.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제가 대청호 소식지에 글을 올리게 되어 조심스럽게 작성해 봅니다.

저는 유치원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가 2012년에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또 다른 직장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회복지사의 삶은 어떨지 궁금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근무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들을 키우며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갖기 위해 가장 최근까지는 유치원 외부강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늘 변함이 없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더 이상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에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 다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제 열정을 쏟아 부을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풀꿈환경재단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지 며칠 안됐지만, 참여와 연대협력을 통하여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우리 풀꿈환경재단의 일원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 한다면 깨끗한 환경,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생각입니다.

2020년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에서는 소유역협의회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일상적 하천관리활동 전개로 참여협력형 유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대청호 상 하류, 도시 농촌, 기관 단체 마을의 교류와 협력 확대로 청주네트워크 및 유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 김재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천안아산네트워크, 대청호 소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맑은 물 환경 조성 주민 실천 협약 체결식 개최

지난 2020년 5월 7일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천안아산네트워크(사무국: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는 천안시 북면 맘앤쉐프에서 "대청호 소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맑은 물 환경 조성 주민 실천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천안아산네트워크는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하천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병천천 소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실천활동 전개 및 물공동체 문화조성 그리고 병천천 유역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친환경 조성의 첫걸음으로 맑은 물 환경조성 주민 실천 협약 체결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대청호 소유역거버넌스 구축과 맑은 물 환경조성 주민실천 협약 체결식에는 천안시 북면 위례마을살이에서 이상명 국장님을 비롯해 김영세, 이규식, 윤태진, 조도현 활동가 분들이 참석 해주셨고 병천지킴이 한대웅님, 병천고등학교 박종건 선생님, 한마음고등학교 김일응 교장 선생님, 김경식 가전3리 이장협의회장님, 김명진 가저2리 전 이장님, 염종수 가전1리 이장님, 이형우 병천면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이광역 의장님, 서상옥 국장님, 이상호 구본경 김성수 간사님, 한유정 천안KYC 국장님,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 김재곤 팀장이 참석 했습니다.

개회식을 하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국장님이 대청호 소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맑은 물환경 조성 실천활동에 대한 사업 주요내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소유역 거버넌스인 만큼 지역 주민 분들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참석한 주민 대표분들이 소유역 거버넌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습니다.

발표 후에는 대청호 소유역 거버넌스 구축과 맑은 물 환경조성 주민 실천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천안아산네트워크와 위례마을살이, 주민 대표 각 1분씩 나와서 서명했습니다.

마지막은 앞으로 활동할 병천천을 배경으로 맑은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병천천은 미호천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청호로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병천천 수질개선을 통해 충청권 400만 인구의 식수로 활용되는 대청호 수질이 보다 더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1차 운영위원회 개최

1차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금산군 다목적군민회관 3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부설기관으로 하천감시조사활동,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활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년에는 4월에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에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당을 넓게 사용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모두 마스크도 착용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각 지역네트워크 대표 및 하천감시단 대표, 네트워크 팀장, 지자체 환경과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4월에 실시한 하천조사 결과를 보고 및 논의하고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대상마을을 추천받았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 하천감시단 교육 및 간담회를 어떻게 할지 세부계획을 논의하였다.

정책연구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대청호 수질개선 위한 유역기반 조성 및 대청호보전운동 국내외 홍보 강화 중점”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5월13일 오전 10시30분, 대청댐물문화관 2층 회의실에서 첫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배병욱 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전체회의에는 10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활동평가를 토대로 구성된 2020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사항 및 역할분담 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올해 정책연구위원회는 대청호상류지역 환경현안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현안모니터링활동에 대한 5~6년 전 현황과 비교분석하는 연구과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청호보전운동의 모범적 사례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외부사례를 적극 수용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계획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교류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하여 외국견학보다는 대청호보전운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한영판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전세계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한편 대청호유역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는 매년 대청호 환경현안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행정과 주민간 이해관계를 좁히는데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먹는 물에 쓰레기가…” 대청호 인근 쓰레기로 몸살

대전 시민의 식수인 대청호가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시민의식 제고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대청호 제4·5구간(동구 대청동 일원)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본격화하고 있다. 제4구간은 대표적으로 ‘슬픈연가’ 드라마 촬영지이며, 제5구간은 동구의 대청호벚꽃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지난 2018년 대전시는 대청호명품오백리길 제4구간에 대한 무장애 탐방데크 및 무료 와이파이존 등을 설치했다.

또한 제5구간에서는 지난해부터 대청호 벚꽃축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해 동구에 위치한 대청호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7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9년 이전 통계치는 없다.

이같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쓰레기로 인한 고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 횟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시로 환경미화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지만, 매월 대대적인 청소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쓰레기를 수거하자 트럭 4대 분량이 나오기도 했다.

구는 대부분 쓰레기들은 도로가 아닌 물 쪽에 많이 있으며, 직접 강에 투기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대청호는 식수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구는 곳곳에 안내문 또는 현수막을 통해 쓰레기 투기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대청호 관광개발을 통해 증가할 관광객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마시는 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지양하는 시민 의식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동구 관계자는 “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수시로 처리할 것”이라며 “또한 방문하시는 관광객이나 거주하시는 분들도 ‘식수’라는 점을 인지해 최대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중도일보】 2020. 04. 27 김소희 기자

“옥천군에 대청호 활용한 국립호수생태자원관 건립해야”

충북 옥천군에 대청호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가칭)국립호수생태자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옥천군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충북연구원 초청 군 발전방향 정책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성보현 충북연구원 박사는 이날 단기적으로는 국립호수생태연구원(연구중심)을, 장기적으로는 국립호수생태자원관(연구+전시)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박사는 옥천군은 문화·역사자원과 대청호 생태자원의 유기적 활용을 위한 생태관광플랫폼 구축으로 학술·문화·전시·생태체험 등을 융합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청호 생태자원의 활용과 생태관광을 접목한 생태체험 관광시설과 대청호 거점단위 친환경 생태관광벨트 구축도 제안했다.

성 박사는 생태문학을 주제로 장계관광지를 창작자 레지던시로 만들어 옥천 생태문화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5개 분야의 의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눴다.

농업분야는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했다.

지역개발 분야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통한 일반농산어촌사업 공모, 남부권 연계협력형 관광벨트 조성 등의 의견을 나눴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 환경부 합리적 규제개선 관련 규제지역에 대한 관광·농업·산업과 연계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충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방사광가속기 청주 오창 유치와 관련, 옥천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준비 사항,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제언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고의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 박사들을 초빙해 각종 규제로 개발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옥천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날 제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옥천군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재종 옥천군수, 정초시 충북연구원장과 소속 연구원 5명, 군 실·과·사업소장과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1】 2020. 05. 14 장인수 기자

‘대청호에 배 뜰까’…충북도, 뱃길 복원 사업 재추진

충북도가 10년 넘게 끌어온 '대청호 뱃길 복원' 구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번에는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이 충북도 편에 서서 사업을 이끌게 돼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임용된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도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로부터)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청호에는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문의 문화재단지 옥천 장계유원지(47㎞) 구간에서 유선(놀잇배)과 도선이 운항하다가 수질 문제 등이 불거져 4년 만에 중단됐다.

뱃길 복원은 이후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개방 이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거론되다가 이 지사가 처음 도백(道伯)에 오른 2010년 민선 5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청원·보은·옥천군이 2010년 10월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약식’을 한 뒤 도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부터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운 환경단체와 인근 시·도의 반발로 무산됐다.

충청권 식수원을 책임진 대청호는 청남대 일대 수역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충북도는 ‘선박 운항이 수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도입, 수도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태탐방선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번번이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대의 중심에는 환경부가 있었다.

환경부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뱃길 복원은 불가하다”고 단호했다.

이런 환경부 소속으로 법무담당관, 환경정책관, 감사관을 거쳐 대청호 관리를 책임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지낸 이 정책특보가 과거 대청호 뱃길 복원에 부정적이었던 건 당연하다.

그는 환경부에서 물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자신이 반대했던 대청호 뱃길 복원을 성사시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그동안 대청호 뱃길 복원과 관련한 상황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옥천군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가 골자인 이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전제로 댐 주변 개발이 ‘절대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바뀌었다.

환경부와 협의 하에 대청호 주변에서도 건축은 물론 유·도선 운항 등 친환경 활용이 가능해졌다.

물론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줄곧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환경부가 충북도의 대청호 뱃길 복원 계획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청호는 팔당호나 충주댐 주변과 비교해 규제가 아주 심하다”며 “이번 기회에 대청호에 도선이 다니고, 청남대 등 주변에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 05. 14 전창해 기자

“전 금강환경청장 이용해 대청호 배 띄우려하나”
청주충북환경련, 이시종 충북지사 비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이용해 대청호에 배를 띄우려한다고 비난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임용된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도청 출입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임용돼 충북도가 대기질, 기후위기, 난개발, 화학물질 등 당면한 여러 환경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이 지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이경용 보좌관은 금강유역환경청장 당시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었다"면서 "대청호에 배를 띄우면 상수원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민간소각업체들이 환경부 출신을 채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꼼수를 부려 정치권과 시민들이 비판했는데, 행정기관인 충북도가 똑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명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라며 "450만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보다 가볍게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는 대청호로 피해보는 남부3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피해 받는 남부3군을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배띄우는 것만 고집하는지 의문"이라며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보다 대청호의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 단체는 "충북도는 환경전문가를 이용해서 대청호에 배띄우려고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자립 등 충북도의 당면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환경전문가를 임명한 이 지사가 해야 하는 진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 05. 20 김영재 기자

대전 동구,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불법어로 행위 단속 등

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및 수상 레저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구는 특히 아침과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위법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보다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 05. 18 이상선 기자

대전 동구, '대청호자연수변공원 확대' 착수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동구 추동 447번지 일원에 대청호자연수변공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청호자연수변공원 확대조성공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은 2009년에 조성된 이래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동구의 대표 관광명소이나,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공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까지 10억 원을 들여 인접 부지 7533㎡를 확보했으며 공모사업과 대전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성비 11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 확대조성 조감도.구는 이번 공사로 미로시설과 포토존 등의 체험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한편 잔디광장,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설치,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청호수변공원의 확대조성으로 동구의 관광자원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대전 관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20. 04. 14 최문갑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풀꿈환경재단

청주새활용시민센터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청주새활용시민센터가 다음달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일회용품 및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 확산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2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슬기로운 에코생활' 시민참여 캠페인 두 번째 이야기로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참여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자유로운 방식(글, 사진, 그림, 동영상 등)으로 표현해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민을 비롯한 에코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e-book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응모된 이아디어는 △내용성, 쓰레기줄이기 등 자원순환 이야기 △흥미성, 얼마나 재미있고 유쾌한가? △작품성, 아이디어 제출 형태의 완성도 △효과성,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공감 정도 등을 심사한다.

심사발표는 7월 초 예정이며 대상 1인(50만 원 상당 상품권), 최우수상 1인(3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3인(10만 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인(5만 원 상당 상품권), 특별상 다수(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환경이 개선되고 일부 생태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가 하면 일회용품과 쓰레기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닥뜨리고 있다"며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기관인 청주새활용시민센터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문화 확산, 새활용(업사이클) 활성화 등 청주시의 자원 순환 종합시설이자 전담기관으로서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변 불법행위로 생태환경 악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일 "각종 불법행위로 금강변 생태환경이 크게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금강에 있는 보 인근에 각종 쓰레기와 가축 사체가 버려져 있고, 각종 시설물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금강과 유구천 합수부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쓰레기 투기 단속 CCTV가 있는 청양군 목면 신흥리에서는 버려진 트랙터가 발견되기도 했다.

낚시꾼들은 낚시가 금지된 백제보 인근에서 버드나무로 좌대를 만드는 등 수변 환경을 크게 훼손했다고 환경단체는 설명했다.

대전충남녹생연합은 "수문이 닫힌 백제보에서 오염지표종이 나타나는 등 금강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인체 건강과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수은과 구리, 납·등 32개 물질이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32개 특정수질유해물질량을 조사해 공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토록 유도,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있다.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지자체로부터 조사대상 사업장을 제출받아 233개 사업장(대전 36, 세종 11, 충북 90개, 충남 96개)을 선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립도서관-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업무협약

청주시립도서관(관장 유서기)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오황균)이 6일 시립도서관 문화교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립도서관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2020 풀꿈환경강좌'를 위한 시설사용 및 편의를 제공하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도서관의 환경인문강좌 등을 지원하며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사이버 전시중인 환경프로그램 '업사이클링 갤러리 도서관'을 개관 후에는 이용자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이와 연계한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 및 강좌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협력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유서기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주시의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참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은군

보은군, 우기 대비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

충북 보은군은 여름철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상준설, 수목제거, 호안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11개 읍·면 공무원과 합동으로 농경지 침수위험지역과 주민 생활공간이 접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지방하천 구간에 대한 조사 후 해당 지역의 호안정비, 수목제거 및 하상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적암천, 달천, 삼가천, 보청천, 거현천 등 지방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준설, 호안정비 등 7개소 ▶대목천, 소리목천, 작은말천 등 소하천 호안정비 및 보수 등 13개소 ▶11개 읍 면 소규모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사업 등 도비를 포함한 26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제방정비, 하상준설,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에 대한 친환경적인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규모 호안정비 및 하상정리 등 소하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준설, 수목제거 등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본래의 기능이 향상돼 저지대 침수 등 수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옥천군, 뱀장어 치어 2만2000여 마리 대청호에 방류

충북 옥천군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8일 군북면 소정리 선착장에서 뱀장어 치어 2만2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 행사에는 김재종 옥천군수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등 어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옥천군은 매년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류 어종과 희망 방류 수역은 지역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방류를 위해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다.

이날 방류한 치어는 8년 정도 지나면 길이 50㎝ 이상의 어미 뱀장어로 성장한다.

어미 뱀장어는 현재 kg당 12만원을 호가하는 어업인의 주요 소득 자원이자 부가가치가 높아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이날 방류한 치어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유전자 검사와 전염병 검사를 거친 전장 10.0㎝ 이상의 우량한 종자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올해 뱀장어 치어 포획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납품단가도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하락해 방류한 치어 수도 지난해 9000여 마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다.

박병욱 옥천군 환경과장은 "뱀장어 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쏘가리, 붕어 등 토종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풍부한 어족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대청지사, 문의면에 '생활용품' 기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면장 함영록)은 12일 K-water 대청지사(지사장 이재홍)에서 1천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생활용품은 써큘레이터 70대와 야광 안전지팡이 50개로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함영록 문의면장은 "안전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K-water 대청지사는 해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을 위해 연탄 및 김장김치 후원, 나들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동군

"마을 영물을 지켜라"… 영동군, 보호수·정자목 정비

충북 영동군이 마을의 '영물'로 불리는 마을 보호수·정자목 정비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정비 지역은 상촌면 흥덕리 등 16곳이다.

대상은 느티나무 16그루, 소나무 5그루, 버드나무 2그루를 합쳐 23그루다.

군은 읍·면 수요 조사와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정비 대상을 확정했다.

사업비는 6천700여만원이다.

외과 수술, 토양 개량 및 영양 공급, 주변 정리 등 수세 회복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비사업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의 역사와 전설 등을 간직한 나무를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총 66그루의 보호수와 정자목을 관리하고 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사단법인 정심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